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5월 18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어용노조는 노조 아니다!

전남 지노위 대양판지 과반수노조로 어용노조 인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대양판지의 어용노조를 과반수노조로 인정했다.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가 제기한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에서 어용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 위원들은 자료도 거의 보지 않고, 그저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 없으니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로 심의 회의를 몰아갔다. 대양판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걸린 중요한 내용인데도 지노위는 서류만 뒤적거린채 제대로 어용노조의 실체도 파악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

어용노조 해체 투쟁은 계속된다!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니 어용노조는 조만간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남아있고, 어용노조 설립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어용노조 해체 투쟁은 계속 진행된다. 대양판지 자본이 직접 개

입해서 설립한 어용노조는 노조가 아니다.

지회는 과반수노조 판정에 실망하지 않고 이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어용노조 설립 무효 소송은 물론이고, 현장 투쟁을 통해서 진짜 노조가 어떤 것인지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

복수노조 악용한 노조파괴 용서하지 말자!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조파괴는 수없이 봐왔던 노조파괴 전략이다. 지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대양판지 사례는 이 제도가 왜 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줬다.

대양판지에서 어용노조 반드시 해체하고 노조파괴를 박살 내자. 그래야 자본이 이런 방식으로 노조파괴를 시도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없애야 한다. 더 이상 복수노조-노조파괴가 반복되지 않게 대양판지 투쟁에서 끝장내자.

미조직사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지부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미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부는 5개 권역별(영동/옥천권, 대전권, 세종/청주권, 진천/음성권, 충주권) 지회장 간담회를 열어 미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회장들의 의견을 듣고 결의를 모았다. 미조직위원회 구성은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노조가입율은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노조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조직율은 훨씬 떨어진다. 노조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하려면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을 조직하기 위한 미조직사업은 필수적이다. 지부는 그동안 대전지역 미조직 선전전, 충북 원남산업단지 전략조직화 사업 등 다양한 미조직사업을 해왔다. 이번 미조직위원회 구성은 미조직사업에 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 주요 일정 *

■ 3차 중앙교섭

- 5/19(화) 14:00, 금속노조 회의실

■ 유시영 엄벌촉구 결의대회

- 5/20(수) 15:00, 천안법원 앞

■ 3차 지부교섭

- 5/21(목) 15:00, 코스모링크